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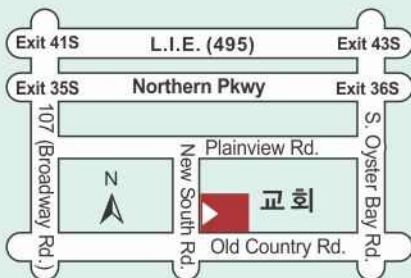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 부 예 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 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 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 배 오후 1:00	본 당
	주 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 중 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310장, 428장		
기도 Prayer	박용훈집사	정수영장로	김용호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삼하(2Sam)9:1-8		
찬양 Anthem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은혜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정희태집사	2부 유학준장로	3부 김두성장로
방송설교	KRB FM 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임직자들을 통하여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본문: 벰전(1Peter)4:7-11

제목: 오직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을 5개 강령에서 발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개혁의 성격을 볼 때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줍니다.

1. 만물의 마지막(종말)은 언제인가?

1) 개인적 종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역사적(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데 특별히 누가복음 21:11에서는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재림의 징조 중 하나라는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그간 중세 흑사병, 1900년대 중반 스페인 독감, 에이즈, 아볼라, 사스 등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세계 전역에 퍼진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1년 10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 2억 5천만 케이스, 사망 5백만 케이스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 믿음으로 현재의 환경의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1)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실패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가슴 치는 후회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추한 자가 정하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염려가 평강으로 변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세 이레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와 에스라의 예).

2)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은 모이면 누가 가장 크냐고 경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눅 9:46). 이것은 공동체에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 사슬입니다(본회퍼). 비교와 경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 사랑에서 사랑을 배우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요일 4:10-12). 교회는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3)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을 하지 않으면 대접을 받기만 원하게 됩니다.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인정과 영광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찾지 않습니다. 섬김은 겸손의 최고의 훈련입니다.

4)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인생은 부름 받은 삶과 쫓기는 삶이 있습니다. 쫓기는 삶은 성취욕에 따라 삽니다. 부름 받은 삶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청지기인 것을 압니다. 사울 왕이 쫓기는 삶을 산 대표라면 세례요한은 부름 받은 삶을 산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요 8:29). 부름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성령)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기도로, 사랑으로, 대접으로, 청지기 같은 봉사로 코로나를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의 종교 개혁입니다.

목장이야기

2021 Holy-Win Day

재미있는 게임, 사탕을 가들 담은 구디백, 과자 뷔페, 뽕튀기 접시와 빠빠로 젓가락... 유년부 전도사님이 외칩니다. "The righteous will!"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LIVE BY FAITH!"

지난주일 홀리윈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형, 누나와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큰 소리로 말씀을 외우고, 맛있게 만들어진 과자 뷔페를 잔뜩 먹고, 행복하게 집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헬러윈으로 파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미니축제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점점 아이들의 삶에 커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일의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진리로 울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홀리윈을 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sermon in English (11am service).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jUJ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용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11월 10일
기도	손지현 권사
말씀	박태진 선교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김종훈 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11월 14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정희태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유학준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김두성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11월 17일 수요기도	전미경권사	예배부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예배: 박태진선교사(니카라과)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추수감사절 안내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 1-3부 예배, 세례&입교식
추수감사절 절기헌금 금년예산	\$80,000
추수감사절 오행시 주제	광야의 축복(11/17수요일까지 부목사실로 제출)
세이레 릴레이 금식기도	11/1-11/24(주일을 뺀 21일)
특별새벽기도	11/15(월)-20(토) 주제: 기도하면 변합니다.

3. 정기당회: 오늘 오후 2시 30분 친교실
4. 10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 통독/13명 다독/103명
*목장별로 성경통독&다독 상품을 친교실에서 찾아가세요(장년교육사역부).
5.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 단 꽃: 김원배집사&심성실권사(며느리 생일), 윤용근집사&윤승진목사(예리 생일)
- 사랑의식탁:

교우동정

- 장례예배: 고 오원섭장로 11/9(화) 오전 11시
Oyster Bay Funeral Home: 261 South St. Oyster Bay, NY 11771
- 축결혼: 권순천 Thomas Kwon(권철훈집사&권미경권사) 11/13(토) 오전 11시

행사예고

-11/19	목장예배
-11/21	추수감사주일
-11/28	대강절 I, 교역자 Retreat

QT본문

요일	일(7)	월(8)	화(9)	수(10)	목(11)	금(12)	토(13)
본문	삿(Judg) 3:12-31	삿(Judg) 4:1-10	삿(Judg) 4:11-24	삿(Judg) 5:1-18	삿(Judg) 5:19-31	삿(Judg) 6:1-10	삿(Judg) 6:11-24

새벽마다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두 종류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아는 세대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광야를 거쳤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광야를 거치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보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광야의 기적과 정복 전쟁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대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본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광야의 기적과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흘러간 역사로 듣기만 한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세우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누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주변 가나안 부족의 아들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다른 민족에게 노예가 되어 고통하며 신음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는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 21:25).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아도 실감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을 겪고 전쟁 후에 가난한 세월을 겪은 세대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지금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며 가난을 모르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세대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한 세대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역사책을 통해 전쟁과 가난 극복의 이야기를 들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게 심각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년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본격적인 이민이 들어 왔습니다. 이민 1세대의 땀과 헌신을 통해 이민 사회도 세워지고 이민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2세대들은 1세대들의 닦아놓은 터전 위에 전문직 직업을 가지게 되고 미국의 주류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영향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 80-90%의 이민교회 출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된 이유가 1세 중심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세속화가 적지 않은 유혹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가 가져다주는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불안과 고독의 삶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신 6장). 세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1세와 2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빌 2:5).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살 때는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였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대를 건질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